

인구감소 시대,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여성 창업 활성화에 대한 제언

초록

-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의 도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급속한 기술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혁신 기술 중심 디지털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반을 개정하고 정부 주도로 신산업 분야 중심 혁신 창업을 이끌어 창업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만 신산업 분야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이며, 딥테크 창업 시장에서 여성 창업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 ◎ 이러한 현실은 여성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 성공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여성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또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배경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기준 연평균 2.2% 수준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인구감소, 노동시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활용되던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 활용이 필요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창업기업과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창업의 질적 성장 역시 뚜렷해짐. 특히 신산업 혁신기업과 신설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높게 나타남.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함.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산업간 융복합 창업 대두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대응하고자 기존 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라 표명함. 또 이 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또한 '신산업 창업'을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이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산업 분야 23개를 새롭게 지정하여 해당 분야 기술을 적용한 창업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함.

● 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약 314만 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40.6%지만 여성기업 매출액 비중은 10.2%(689조 원)에 불과하고, 여성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평균 매출액은 연간 약 2.1억 원 수준임. 특히 여성기업은 도소매업(27.6%), 부동산업(21.8%), 숙박 및 음식점업(16.4%) 등 소규모 서비스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1인 기업이 79.9%, 개인기업이 93.0%로 영세한 수준임.

● 2020년 기준 여성 창업기업은 약 69만 개로 전체 창업기업 수의 46.7%에 해당하지만, 여성 창업기업 중 벤처확인기업은 10%,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은 7.1%, 경영혁신기업(메인비즈)은 2.4%에 불과함. 그리고 여성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약 9만 2천여 개로 13.4% 정도임. 즉, 여성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의 비율은 매우 극소수임.

●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이 이미 2020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또 여성창업은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자원인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다양한 긍정적 가능성을 높여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창업 분야에서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디지털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요약 가능함.

▶ 2023년부터 개정법령을 근거한 지원사업에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기존 업력 기준인 7년보다 완화된 10년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함.

▶ 또 Deep Tech 분야 스타트업에 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자금 지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등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됨.

● 이러한 정부의 기조 변화는 일반창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줌.

▶ 문제는 이번 「중소기업창업법」 전부개정 내용에 여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고, 「창업사업화 통합관리 지침」(10차) 제70조의 제1항에 '여성창업기업의 창업활성화 촉진을 위해 여성창업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고, 각 사업의 우대요건 역시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설정되며, 정책환경에 따라 개편되기도 하기에 그 영향은 기대하기 어려움.

▶ 또 「중소기업창업법」 전부개정 이후 2023년 5월 제정된 '창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기부고시 제2023-41호)' 제10조제4항도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시 여성(예비)창업기업, 청년(예비)창업기업 및 장애인(예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효력은 향후 정책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법」과 별개로 여성기업과 여성 창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지원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법임.

- ▶ 즉, 여성 창업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법」과 「여성기업지원법」 양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여성기업지원법」상 여성 창업 지원에서 신산업 분야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창업법」의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따라서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여성기업지원법」을 통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움. 즉, 신산업 분야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법」과 「여성기업지원법」 모두에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일반 창업지원사업 중 지원 부문에서 여성 별도의 트랙을 마련한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 「창업성장기술개발(R&D)」,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 및 확산(교육)」, 「도전! K-스타트업(경진대회)」이 대표적이었음.

- ▶ 다만 이들 사업은 기존 사업이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의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없음. 또 「여성기업지원법」에 의한 여성 특화 지원사업도 「여성기업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엑셀러레이팅 운영」 등으로 역시 기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확인함.

● 이에 2023년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신규 추진된 사업에서 여성 선정 현황을 확인하고자 대표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선정기업 150개사(2023년 5월 기준)를 확인한 결과, 여성기업은 7개사(5%)에 불과함.

- ▶ 이는 지난 13년간 창업지원사업 수혜 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중이 약 20%였던 것에 비해 매우 급감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상당히 집중해야 할 만한 문제임.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기업 특성 분석 결과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 ▶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은 남성기업의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 여성기업은 남성기업과 비교하여 주요 기술 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창업자의 특성과 전공, 직무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 다만 창업 경험에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창업 성공 경험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 여성기업의 매출액은 남성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성장단계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기업은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았고, 여성기업은 초기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를 이뤘음. 따라서 현존 여성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고도성장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남녀기업 모두 연구개발 직무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기술 역량과 관련된 특화된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1> 기업의 주력상품 관련 기술과 신산업 분야 매칭 결과

(단위: 명, %)

창업기업 지원법에서 지정한 신산업(23개)	본 조사 내 주력상품 관련 기술(20개) ¹⁾	남성기업		여성기업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0,549)	91.1	(2,017)	8.9
매칭 가능²⁾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575)	2.8	(3)	0.2
의료기기	의료기기	(1,452)	7.1	(206)	10.2
전기수소차	전기·수소차	(580)	2.8	(38)	1.9
바이오	바이오	(1,774)	8.6	(279)	13.9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794)	3.9	(0)	0.0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	(506)	2.5	(0)	0.0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868)	4.2	(91)	4.5
서비스플랫폼	서비스플랫폼	(2,815)	13.7	(320)	15.9
인공지능	인공지능	(1,925)	9.4	(143)	7.1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772)	3.8	(76)	3.8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611)	3.0	(170)	8.4
드론·개인이동수단	드론	(460)	2.2	(43)	2.1
빅데이터	빅데이터	(1,871)	9.1	(121)	6.0
블록체인	블록체인	(237)	1.2	(53)	2.6
스마트시티	스마트 시티	(599)	2.9	(26)	1.3
재난/안전	재난/안전	(681)	3.3	(161)	8.0
5G+	5G+	(210)	1.0	(0)	0.0
이차전지	이차전지	(448)	2.2	(0)	0.0
스마트제조	스마트제조	(1,277)	6.2	(188)	9.3

주: 1) 우선순위 없이 최대 3개까지 응답 가능함.

2) 중소기업창업법에서 지정한 신산업 분야 23개 중 일치하는 것을 연구진이 매칭함. 다만, 기능성식품, 미래형 선박, 스마트홈, CCUS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주력상품 관련 기술 문항에 포함되지 않아 매칭이 불가함.

자료: 통계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1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 ▶ 여성기업의 비율은 남성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3.2%로 나타남.
- ▶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남성기업과 여성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남성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던 반면, 여성기업은 상대적으로 활용 분야가 한정적이었음.
- ▶ 재무적 측면에서 남성기업은 여성기업에 비해 자본금·매출액·근로자 수 등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임.
- ▶ 모회사와 자회사 관련하여 여성기업은 모회사 보유 비율과 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기업은 자회사 보유 비율, 보유 회사 수, 자회사 투자금액 등 자회사와 관련하여 높은 비중을 보임. 이는 남성기업이 이미 자회사를 보유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을 보여줌.
- ▶ 다만 신산업 분야 여성기업의 자본금과 매출액은 비신산업 분야 여성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표 2>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 분야와 신산업 분야 매칭 결과

(단위: 명, %)

창업기업 지원법에서 지정한 신산업(23개)	본 조사 내 주력상품 관련 기술(9개) ¹⁾	남성기업		여성기업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3,455)	96.8	(115)	3.2
매칭 가능 ²⁾					
빅데이터	빅데이터	(643)	18.6	(28)	24.3
5G+	모바일(5G)	(342)	9.9	(13)	11.3
인공지능	인공지능	(486)	14.1	(18)	15.7
블록체인	블록체인	(139)	4.0	(5)	4.3
지능형로봇	로봇공학	(230)	6.7	(3)	2.6
실감형콘텐츠	가상증강현실 (VR, AR)	(201)	5.8	(8)	7.0

주: 1)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최대 9개까지 응답 가능함.

2) 중소기업창업법에서 지정한 신산업 분야 23개 중 서비스플랫폼,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은 기업활동조사의 활용하고 있는 기술 문항에 포함되지 않아 매칭이 불가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21년.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인창조기업실태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 ▶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은 약 10% 수준이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 특히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기술 분야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돕는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함.
-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SNS 광고, 이메일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창업자금, 세금 감면 지원, 창업 부담금 완화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접근성도 향상해야 함.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 사례조사 결과

● 여성창업 성공 요인, 애로사항, 투자자 동향, 정책지원 수요 등 현황을 파악함.

● 여성창업자 면접조사 결과

- ▶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부터 인문사회 및 디자인 분야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다만 여성창업자들은 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등 세 가지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기술적 다양성은 낮은 편임.
- ▶ 창업지원 및 투자 경험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사업에 다양한 참여 경험과 투자유치 경험을 보유함. 다만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험도 다수였음.

- ▶ 이들은 성장을 위해 자금 확보, 마케팅, 연구개발, 인적자원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으로 인적자원 확보, 성차별 문화 및 편견, 네트워킹 저조 등을 꼽음. 여성창업자들은 예비 여성창업자 풀 확대, 멘토링 지원 확대, 네트워킹 지원, 여성창업자 대상 교육 지원 등 확대, 여성창업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대책 마련,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 요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함.

● 투자회사 실무자 면접조사 결과

- ▶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 2년 동안 전반적으로 저조했고, 특히 여성이 많이 진출한 서비스 플랫폼, 바이오 등의 분야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 가장 큰 원인으로 여성창업자들이 혁신 기술(deep tech 등)을 활용한 창업을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기술 관련 정보 부족,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또 여성창업자들이 투자유치 등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성의 경쟁 회피 및 안정적인 환경 추구, 경험 부족, 롤모델 부재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힘.
- ▶ 특히 여성창업자들이 소통과 네트워킹 부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로 강조됨.
- ▶ 여성 창업에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은 여성들이 주로 창업하는 분야(혹은 아이템)가 투자자에게 흥미로운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대개 여성창업자들의 창업 출발 및 목표가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나 불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 여성창업이 몰리는 경향이 지적됨.
- ▶ 이에 여성창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투자시장의 인식 변화, 투자심사역의 변화, 여성전용 펀드 확대,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경험 증진 등이 제안됨. 특히, 여성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치평가 및 소통의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됨.

● 여대생 예비창업자 분석 결과

- ▶ 여대생 예비창업자들의 주된 특징은 기술 중심 창업을 내세웠다는 점임. 모든 창업팀이 기술기반 창업을 추구하였는데, 주로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였음. 여대생 창업팀은 주로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공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임. 이를 통해 전공 기반 기술 역량이 창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함.
- ▶ 일부 창업 팀은 환경문제 해결을 고려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전공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은 여성창업의 특성임.
- ▶ 많은 창업 팀이 현재 사업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장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음. 또 학교나 교수님들의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경험한 창업팀이 다수였고,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팀을 구성하는 사례도 확인됨. 이들은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창업에 접목하고 있었음.
- ▶ 여대생 창업자들은 점포 유지 비용이 필요 없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창업이 진행됨.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 현행 창업지원 법령과 관련 규정·지침상에는 신산업창업과 관련한 여성창업 지원 근거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시 여성 우대에 관한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님.
- ▶ 창업지원 법령상에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사업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면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함.
 -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연령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별 특수성과 함께 성별에 따른 특수성도 고려하도록 개정이 가능함.
 - 제11조 개정안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산업·기술창업 집중육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제25조에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호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성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규율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창업 지원은 신산업 분야 등 유망산업 진출을 독려하고 육성하는 부분은 명시된 것이 없음.
- ▶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 기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움.
- ▶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아래의 네 가지 개정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정하지 않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신산업 및 기술창업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방법이 가능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신산업 및 기술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명시하여 추가하는 방법이 가능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신산업 및 기술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이 가능함.
 -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신산업 및 기술창업과 관련된 지원내용을 신규로 도입하는 방법이 가능함.

2.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안

-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여성창업 지원전략’의 세부추진 과제는 ①사업화 지원, ②투자지원, ③창업공간 제공, ④여성창업 교육 등 크게 네 가지임.
- 따라서 본 연구의 지원사업 제안은 네 가지 과제를 기준으로 작성함. 특히 ‘창업지원 종합계획’은 2024년 새롭게 작성·적용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현행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 및 개선되어야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함.

1. 사업화 지원 부문

- ▶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기술컨설팅 지원 강화: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신설, 기술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설
- ▶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기회 및 경험 강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중소기업벤처부) 여성 트랙 신설 혹은 우대 신설, ICOR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확대, 여성 데모데이/여학생 창업경진대회 정부 지원 신설, K-Girls’ Day(산업통상자원부) 강화 지원
- ▶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인력 및 네트워킹 지원 강화: 대학의 역할 강화, 산학연계 지원체계(기술이전, 인력교류) 강화, 졸업생(경력단절여성, 이공계 전공 여성) 창업 지원체계 마련, 예비창업 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여성 트랙 내 네트워크 지원 신설

2. 투자지원 부문

- ▶ 여성창업 대상 민간 투자처 정책적 지원 강화: 시중 은행의 여성펀드 참여 가이드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신설
- ▶ 여성창업 기업의 투자 가치 제고 지원: 여성창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TIPS 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부) 운영사 역할과 유사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신설
- ▶ 신산업 분야 창업생태계에 여성 전문가 충원 및 네트워크 지원: 신산업 분야 심사역 등 전문가 및 여성창업자 네트워크 조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평가위원 구성 시 분야별 여성 전문가 충원 확대, 신산업 분야 비이공계 여성의 융·복합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도입 및 확대

3. 창업공간 제공

- ▶ 여성창업자 대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신설: 여성창업자의 출산휴가 보장 및 휴가 기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출산 혹은 육아 관련 휴가 시 기본 생활 보장 수당 지급(남녀 창업자 동일하게 지원), 창업자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 혜택 부여(남녀 창업자 동일하게 지원)

4. 여성창업 교육

- ▶ 신산업 분야 창업생태계 인식개선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정부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양성평등조치 명시,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 기관 차원의 양성평등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창업지원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창업관련 공식 통계에 성인지적 통계자료 작성 및 공표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관계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